

타이거 우즈 “가장 뼈아픈 패배 안겨준 선수는 양용은”

2009년 메이저 PGA 챔피언십 마지막날 양용은에 역전패 지난 US오픈골프서 준우승 그친 매길로이 위로하며 언급

타이거 우즈(미국)가 이번 시즌 마지막 메이저 골프대회 브리티시 오픈(이하 디오픈)을 앞두고 자신에게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 준 선수로 양용은(한국)을 꼽았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디오픈 개막을 하루 앞둔 17일 스코틀랜드 로열 트룬 골프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US오픈 패배로 상심한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를 위로하면서 2009년 PGA 챔피언십을 회상했다.

우즈는 2009년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마지막 날 양용은에게 역전패당해 우승컵을 넘겨줬다.

우즈는 “나는 그전까지 메이저 대회에서 역전패를 당한 적이 없었다. 당시 나는 선두였다”면서 “양용은에게 패배를 당한 뒤 회복할 때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우즈는 자신과 비슷하게 지난 6월 US오픈에서 우승을 놓친 매길로이를 위로하기 위해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우즈는 “나도 많은 퍼팅을 놓쳤다. (은퇴한 미국 프로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도 많은 슈트를 놓쳤다. 중요한 것은 계속 워닝샷을 쓰는 거다. 그리고 나도 여전히 마지막 퍼트를 하고 싶다”라며 매길로이를 위로했다.

하지만 정작 매길로이는 US오픈에서 우승을 놓친 뒤 전화번호까지 바꿔 격려 메시지를 바로 받지 못했다.

매길로이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사람과의 연락을 피하려고 전화번호를 바꿨다. 그래서 우즈가 보내 격려 메시지도 최근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매길로이는 지난날 미국 파인허스트 골프 앤드

리조트에서 열린 US오픈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승을 눈앞에 뒀으나 짧은 퍼트를 몇차례 놓치면서 브라이언 디샴보(미국)에게 우승컵을 넘겨줬다.

특히 매길로이가 18번 홀(파4)에서 1.2m 거리의 파퍼트를 놓쳐 보기를 한 것이 결정적인 패배 요인으로 작용했다.

매길로이는 “US오픈이 끝난 뒤 이를 후에 전화 번호를 바꿨다”며 “오늘 우즈가 말해주기 전까지 격려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매길로이는 “내 인생에서 우즈는 놀라운 존재다. 기쁠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좋은 메시지를 보내줬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2014년 이 대회 우승자인 매길로이는 한국시간 18일 오후 6시 9분 맥스 호마(미국), 티털 해턴(잉글랜드)과 티샷을 한다.

2000년과 2005년, 2006년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한 우즈는 한국시간 18일 오후 10시 37분 쟈더 쇼플리(미국), 패트릭 캔틀레이(미국)와 함께 대회 1라운드를 시작한다.



2009년 제91회 PGA 챔피언십 대회 우승 당시 양용은이 타이거 우즈에게 축하받는 모습. /연합뉴스

음바페 “꿈이 현실로...레알에 내 인생 바치겠다”

8만 팬들 앞에서 입단식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골잡이 킬리안 음바페(25)가 8만여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16일(현지시간) 홈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음바페 입단식을 열었다.

구단은 앞서 지난 3일 음바페와 계약을 공식 발표했으며, 유로(유럽축구선수권대회) 2024가 끝난 뒤 입단식을 열게 됐다.

음바페는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하고자 훈련장으로 이동해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과 앞으로 그라운드를 함께 누빌 동료들과 인사했다. 이어 입단식이 열리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 도착했다.

8만여 팬들이 하얀색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입장하는 음바페의 이름을 연호하며 뜨겁게 환영했다.

대형 전광판에는 ‘환영해요, 음바페’라는 문구가 흘렀다. 음바페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영상과 그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어릴 적부터 레알 마드리드 입단이 꿈이었던 음바페는 스페인어 공부를 열심히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통역 도움 없이 유창한 스페인어로 입단 소감을 밝혔다.

음바페는 “나에게 놀라운 날”이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마드리드에서 뛰는 것이 꿈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곳에 왔다.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감격스러워했다.

이어 “이제 또 다른 꿈이 생겼다. 세계 최고의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의 역사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 클럽과 유니폼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음바페는 프랑스 대표팀의 일원으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했다.

그러나 프로 무대에서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 트로피를 아직 들어 올리지 못했다.

음바페는 기자회견에서 “레알 마드리드보다 우승하기에 좋은 곳은 없다”며 “감동감이 원하신다면 어디에서든 뛰겠다. 포지션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 팬들을 위한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열정과 꿈만 있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오늘은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다음



16일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 입단식에서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엔 여러분(전 세계 어린이들) 중 한 명이 여기에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음바페는 2015년 프랑스 모나코에서 데뷔했

으며 2017년부터는 프랑스의 빅클럽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뛰어들었다. 이번엔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었다.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충남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제2회 전국장애인이스포츠대회’가 열린다. 지난 2023년 치러진 제1회 전국장애인이스포츠대회 경기 모습.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전국장애인 e스포츠대회 열린다

19~21일 아산국민체육센터

전국 장애인들의 e스포츠 교류의 장이 펼쳐진다.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충남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제2회 전국장애인이스포츠대회’가 열린다.

국내 장애인들의 e스포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 21일 예선과 본선을 치르게 된다.

이번 대회는 지체·시각·청각·지적 장애 유형으로 나눠 치러지며 PC, 콘솔, XR(확장현실) 3개 분야 총 7개 종목 283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PC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 ▲FC 온라인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콘솔 종목은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테니스·볼링) XR은 ▲인도어로잉 ▲휠체어레이싱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XR분야의 ‘크로스컨트리스키’ 종목 체험이 가능하다. 크로스컨트리스키는 장애인 e스포츠 선수들에게 종목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벤트 종목으로 운영된다.

종목·장애유형별 상위 1~3위에게는 메달과 상금이, 4위에게는 상금이 수여된다.

종목별 경기 진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4전국장애인이스포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전남 역도단, 양구국토정중앙배 금빛 활약

광주·전남 역도 선수단이 ‘제1회 양구국토정중앙배 전국역도경기대회’에서 금빛 활약을 선보였다.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광주 출신 손현호(국군체육부대)는 남일부 81kg급에서 인상 155kg, 용상 200kg, 합계 355kg를 들어올리며 1위를 차지했다.

정하성(조선대·4년)은 남대부 61kg급에서 인상 91kg로 1위, 용상 105kg로 1위, 합계에서 196kg로 1위를 기록하며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동민(완도군청)은 남일부 61kg급에서 인상

119kg 1위, 용상 144kg로 1위, 총 263kg를 들며 1위에 올랐다.

여자부에서의 금메달도 이어졌다.

여대부 87kg급 권도희(조선대·3년)는 인상 85kg 1위, 용상 105kg 1위, 합계 190kg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임정희(완도군청)는 여일부 +87kg급에서 인상 105kg로 1위, 용상 140kg로 1위에 오른 뒤 합계에서도 245kg로 1위를 기록했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신데렐라

광주시립오페라단 제15회 정기공연 | 콘서트 오페라 가족 오페라 (신데렐라)

일시 : 2024-07-26(금) 19:30
2024-07-27(토) 15:00,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

문의 : 062-412-2502

장원석·박일광 UBUNTU

GAC 공모전시 UBUNTU : 장원석·박일광

일시 : 2024-07-12(금) ~ 2024-08-1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